

2006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존 오웬의 죄 죽임 교리와
개혁주의 구속론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영 수

존 오웬의 죄 죽임 교리와
개혁주의 구속론

지도교수 황 봉 환

이 논문을 석사학위(M. Div.)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영 수

김영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黃鳳煥 (인) 

심사위원 이철승 (인) 

심사위원 손기웅 (인) 

2006년 12월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동기 및 문제제기	1
2. 연구 목적 및 전개방법	2
II. 존 오웬의 생애와 사상	4
1. 출생과 교육과정	4
2. 회심의 때	4
3. 영적 해방을 경험함	5
4. 목회사역과 가정	6
5. 정치적 행보	7
6. 교회정치와 저술사역	8
7. 말기사역	9
8. 사상	10
III. 존 오웬의 죄 죽임 교리	13
1. 성경적 근거	13
1) 구약성경의 증거	13
(1) 시편 78편	13
(2) 다윗의 범죄	15
2) 신약성경의 증거	16
(1) 갈 5:17	16
(2) 벧후 1:4	17
(3) 히 3:13	17
(4) 롬 7:21	18

2. 죄 죽임 교리의 신학적 정당성	19
1) 죄 죽임의 필요성과 그 이유	19
(1) 골 3:5	19
(2) 고전 9:27	20
2) 죄 죽임 교리와 하나님의 은혜	21
(1)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	21
(2) 죄 죽임이 없이는 은혜도 없다.	21
(3) 죄 죽임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상호작용)	22
3) 죄 죽임 교리에 대한 신자의 의무	23
(1)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24
(2) 내재하는 죄의 존재	24
(3) 죄 죽임의 근본적 실천	24
4)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25
(1) 긍정적인 강화	25
a)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이유	25
b)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26
c)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27
(2) 부정적인 강화	27
a) 분투하는 삶을 요구함	27
b) 죄를 향한 혐오감	28
3. 죄의 본질과 그 지배의 방법	28
1) 죄 발생의 요인	28
2) 죄의 지배의 방법	28
(1) 속임	29
(2) 강압	30
(3) 유혹	31
a) 유혹의 정의	31
b) 유혹의 목적	31
c) 유혹의 대상	32

d) 유혹으로 들어간 상태	32
(a) 내면의 부패성이 자극을 받을 때	33
(b) 은밀한 유혹에 생각이 노출 될 때	33
(c) 삶의 상황이 시험의 때일 때	34
(d) 의무에 대해 형식화될 때	34
e) 유혹에 들어간 신자에 대한 처방	35
4. 죄 지배의 징후와 벗어남	35
1) 죄의 지배의 징후	35
(1) 특정한 죄가 생각을 지배함	36
a) 생각을 통한 죄의 진보	36
b) 은혜의 지배 아래서의 생각의 범죄와의 상이점	37
(a) 사고의 기능에 지속적으로 간여함	37
(b) 마음으로 죄의 의도를 받아들임	38
(2) 특정한 정욕이 정서를 장악함	39
(3) 확인된 죄를 버리지 못함	40
a) 죄에 대한 혐오감이 경감됨	41
b)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진 율법을 멀리함	41
c) 죄에 대한 친밀감을 가짐	41
d) 신자의 삶속에 출몰하는 죄	42
e) 비싼 희생의 댓가를 치러야 죽일 수 있는 죄	42
(4) 마음의 굳어짐	42
a) 총체적인 굳어짐	43
b) 부분적인 굳어짐	43
c) 마음의 굳어짐의 원인	44
(a) 근원적인 원인	44
(b) 실제적인 원인	44
(c) 굳어진 마음이 가지는 현상	45
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함	45
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46

c) 총체적인 죄에 대한 아픔이 없음	46
ㄹ)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함	47
(5) 죄 죽임의 방편을 소홀히 함	47
a) 자기 부인이 없음	48
b)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지 않으려함	49
c) 내세를 묵상치 않음	49
(6)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음	50
a) 기도에 준비되지 못함	50
b) 기도의 실천을 꺼려함	51
c) 기도의 능력을 상실함	52
d) 기도의 의무를 무시함	52
2)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남	52
(1)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	53
a) 무한히 부어지는 은혜	53
b) 죄의 지배를 인정함	54
c) 죄의 지배의 행적이 파악됨	55
d) 은혜의 방편들을 발견함	55
e) 죄와의 치열한 싸움	55
(2)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편들	56
a) 지성적 측면	56
(a) 죄를 깨닫게 하심 (어두움의 권세)	56
(b)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심	57
(c) 죄 죽임의 방편을 알게 하심	57
b) 정서적 측면	58
(a) 죄의 지배를 애통함	58
(b)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갈망함	58
(c) 은혜의 지배를 소망함	59
c) 의지적 측면	59
(a) 삶의 총체적 정비	59

(b) 은혜의 방편들을 실행함	60
ㄱ) 말씀을 사모함	60
ㄴ) 지속적이며 마음이 바쳐진 기도의 실천	61
ㄷ) 묵상	62
IV. 개혁주의 구속론 안에서의 죄 죽임 교리	65
1. 그리스도의 속죄와 죄 죽임 교리	65
1) 속죄	65
(1) 속죄의 정의	65
(2) 속죄의 원인	66
(3) 속죄의 본질	66
2) 그릇된 속죄론	67
(1) 사단 배상론	67
(2) 도덕적 감화론	67
(3) 모범론	68
(4) 통치론	68
3) 죄 죽임 교리의 연관성	69
2. 칭의와 죄 죽임교리	70
1) 죄 죽임교리와의 연관성	71
3. 성화와 죄 죽임교리	72
1) 죄 죽임 교리와의 관계	74
V. 결론	75
국문초록	79
참고문헌	80

존 오웬의 죄 죽임교리와 개혁주의 구속론

I. 서론

1. 연구동기 및 문제제기

본 논문 연구의 동기는 청교도 서적을 독서함을 통해서 필자에게 형성되었다. 청교도 서적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존에 교회 교육을 통해 형성되어 있는 신학의 원리들이 개혁신학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교리가 과거 이단으로 규명되었던 운명론자들의 교리와 도덕률 폐기론자 (Antinonianism) 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와 너무도 흡사한 것은 필자에게 개혁교리에 근거한 교회 교육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현시대의 기독교의 신학은 매우 혼탁해져 있다.¹⁾ 왜냐하면 개혁신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신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학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말로 개혁주의 신학의 재확립이 필요한 시대이다.²⁾ 개혁주의교리의 부재로 인해 기독교의 핵심교리가 잘못 가르쳐지거나 은닉됨으로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능력과 교회적으로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통한의 시대가

1) 서창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진리의 깃발』, 통권 제80호, 2006 10, 5-21.

2)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되었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개혁교리의 재확립과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공헌하리라 믿는다.

2. 연구 목적 및 전개방법

금번 논문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 2장에서는, 존 오웬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고, 청교도 신학자인 그가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가를 연구 검토 한다. 그의 생애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시키시고 개혁주의 자들에게 바른 신학을 전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3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죄죽임 교리의 근거 구절들을 주해적,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죄 죽임 교리의 정당성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또한 죄 죽임 교리의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 산자에게도 죄의 지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죄의 발생요인과 형성 과정, 신자에게 일어나는 죄의 지배의 힘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남 등을 고찰 해 본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있는 성화의 거룩한 의무들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며, 죄 죽임이 없이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죄 죽임 교리의 신학적 정당성을 증명하고 이러한 정당한 교리를 간과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죄의 지배의 상태에 빠진 신자가 벗어 날 수 있는 길을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죄 죽임 교리가 개혁주의 구속론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죄 죽임 교리가 존 오웬 한 개인에게서 비롯된 신학이 아니라 개혁교리의 거대한 물결의 한 지류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5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개혁교리인 죄죽임 교리가 도외시되었는지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신학적 흐름을 간략히 살펴봄을 통해 그 과정을 알고자 한다. 또한 한국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죄 죽임 교리를 통해 신자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사멸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든 고찰들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에 얼룩져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개혁주의 구속론과 죄 죽임의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성도의 참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하시고 합당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존 오웬의 생애와 사상

1. 출생과 교육과정

존 오웬은 옥스퍼드 인근에 위치한 스테드햄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영국은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때였다. 그는 헨리 오웬의 두 번째 아들이었다. 존 오웬은 웨일즈 태생의 아버지로부터 엄격하고도 분명한 신앙 교육 아래 자랐고 그 후로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그의 신앙과 신학은 기독교 세력인 국교도들의 잘못된 모든 가르침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분투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게 했다. 또한 그의 모든 삶과 작품 속에서도 아버지 헨리 오웬으로 전수된 웨일즈 지방의 견고하고 강직한 신앙의 흐름이 나타나 있다.³⁾

오웬은 옥스퍼드의 사립학교로 전학을 갔었고 그는 거기서 에드워드 실베스터의 감독 아래서 고전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후 그는 퀸스대학(Queen's College)에 입학하였다. 그는 여기서 토마스 발로우(Thomas Barlow)의 지도 아래 수학과 철학을 공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6월 11일에 학사 (B.A)학위를 받았다. 그는 실로 학업에 대한 엄청난 욕구를 가졌고 아마도 그가 여러 가지 운동과 음악과 같은 취미가 없었다면 그가 감당했던 공부의 분량은 그의 건강과 정신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2. 회심의 때

학생으로서 존 오웬은 학업에 충실했던 반면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3) 제임스 패커 저, 박영호 譯, 『청교도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265.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 어느 순간 회심의 때가 찾아왔다. 회심의 때에 찾아온 구원의 확신은 그의 전 생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천재적인 재능을 통해 습득되어진 지식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었다.⁴⁾

3. 영적 해방을 경험함

존 오웬은 회심 이후 아주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끊임없는 죄의 욕구들이 죽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신앙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인하여 찾아온 침체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무거운 죄책의 짐을 벗겨주셨는데 그가 자신의 심한 침체의 늪에서 고민하고 고통 하다가 그 당시 위대한 설교자였던 에드먼드 칼라미⁵⁾의 설교를 들으러 갔었다. 그러나 칼라미는 그 장소로 오지 않았고 어느 무명의 설교자가 대신 설교자로 나왔는데 오웬은 그냥 가려고 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 속에서 자신 내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의 이유를 알았고 영적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 선포된 설교본문은 마태복음 8:26⁶⁾ 이었다. 오웬은 이후 외국의 신학자들이 자신의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학문적인 성숙함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오웬은 스가라서 4장 6절⁷⁾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4)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는 윌리엄 라우드가 학장으로 승격하였고 그는 찰스의 은밀한 고문이요 주요한 조언자였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존 오웬이 회심을 통해 하나님이 심어주신 신앙이 견고한 체계는 그러한 부당한구들을 견딜 수 없게 하였고 결국 오웬은 21세의 나이에 그의 모든 꿈과 10년 넘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소중한 교제들과 학업을 뒤로 한 채 옥스퍼드 대학교의 문을 나와야 하는 추방자의 신세가 되었다. 앤드류 톰슨 지음, 엄경희 옮김,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 (서울: 지평서원, 2006), 35.

5) 에드먼드 칼라미(Edmund Calamy, 1600-1666) 장로교인으로 캠브리지의 칼빈주의자며 웨스터민스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찰스2세를 복귀시키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하다.

<http://feelpoem.pe.kr>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 8:26).

7)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4. 목회사역과 가정

영적 침체를 벗어난 오웬은 1642년 3월에 자신의 첫 소론집인 『알미니안 주의의 진상』(A Display of Arminianism)을 발표했다. 오웬의 『알미니안 주의의 진상』을 출판하였다.⁸⁾

존 오웬은 포드햄으로 옮겨갔고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오웬은 메리 록크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열한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나중에 한명의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다. 남은 딸은 결혼 후 폐결핵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의 초창기 사역인 포드햄에서의 사역에서 오웬은 그의 견고한 설교를 통해 인근 교구의 사람들까지 그의 설교를 듣기위해 왔었다.⁹⁾

오웬의 포드햄에서의 사역이 다른 성직자에게 돌아감으로 오웬은 코게셀에서 사역하게 된다. 오웬은 여기서 2천명에 달하는 회중에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된다.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오웬은 그의 교회정치에 대한 견해도도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장로교정치를 저버리고 독립파 혹은 회중파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게 된다. 오웬은 강제적인 동질화와 이단적 의견을 칼로 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즈음에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종식』(Salus Electorum, Sanguis Iesu or,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을 발표하였다.¹⁰⁾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 4:6).

8) 이 책들은 그 당시 팽배해져 가고 있던 알미니안적 견해를 제지하고자 기술된 것이었고 자신의 목회사역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해진다. 앤드류 톰슨 지음, *op. cit.*, 41.

9) 오웬은 그의 사역 중에 『목회자의 직무와 구별된 성도들의 직무』(The Duty of Pastors and People Distinguished)는 오웬의 가장 초기 작품이면서 가장 유용한 소논문들 중의 하나이자 권위와 자유를 능숙하게 조화시킨 탁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Ibid.*, 46.

10)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종식』(Salus Electorum, Sanguis Iesu or,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은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알미니안적 구원론을 논박하는 논문이었다. *Ibid.*, 53.

오웬은 목회사역 속에 설교사역의 영광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¹¹⁾ 하지만 그는 저술가로서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그의 저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가히 우리의 심령을 놀라게 할 만한 충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목회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술사역이라 할 수 있다.¹²⁾

5. 정치적 행보

1649년 1월 30일 찰스1세의 처형이 있는 후 오웬은 명령을 받고 의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의 설교의 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¹³⁾ 4월 19일 오웬은 의회 앞에서 한 번의 설교를 더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크롬웰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담당목사로서 아일랜드로 동행하고자 강청하게 된다. 오웬은 코게셀에 있는 그의 교회의 필요를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지만 크롬웰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그와 함께 아일랜드로 떠나게 된다.

이후 그는 '1651년 3월 8일, 의회는 퀸스대학의 석사 존 오웬의 가치와 유용함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여 그를 레이놀드 박사의 자리인,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의 학장직을 맡도록 명하였다. 그 후 크롬웰로부터 옥스퍼드의 부총장직을 지명 받았다. 부총장직으로 있는 동안 오웬은 대학의 나쁜 해악들(방탕함, 무질서)을 치료하였다. 그가 부총장직으로 있을 때 그는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¹⁴⁾

오웬은 1653년 10월에 크롬웰은 그리스도인 연합을 위한 회의에 오웬과

11) 동시대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웬은 웅변이 백스터의 웅변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설득적이고 넉넉한 내비치는 스타일로서 즉, 폭풍우라기보다 이슬 같았다고 증언한다. *Ibid.*, 180.

12) 앤드류 톰슨 저,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 *loc. cit.*

13) 이는 찰스1세의 처형이 옳았다고 하는 가정과 그의 처형이 범죄의 행동이었다는 가정 둘 다를 가능하게 한다. 이 설교에 첨부하여 의회에 헌정한 『관용에 관한 논설』(Discourse on Toleration)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교회의 잘못을 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웬의 공적 생애 중 가장 영예스러운 것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bid.*, 60.

14) 졸업식 날 선발된 학생이 연설 중에 대학을 욕되게 하는 방식을 표현하자 교직원들에게 그를 끌어내리게 했고 그를 대학 감옥인 보카르도에 수용시켰다. 이로 인해 오웬과 학생은 대립했지만 그의 단호한 행동은 학생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져 왔었다. *Ibid.*, 79.

함께 여러 성직자들을 초대한다. 그러나 이 회의를 통해 어떤 즉각적인 방책은 세워지지 않았다. 이후 오웬은 방대한 분량의 저서인 『밝히 드러내고 확증된 성도들의 견인에 관한 교리』(The Doctrine of the Saints' Perseverance Explained and Confirmed)를 출간한다.

오웬은 호민관과 공의회로부터 성직자 지망생을 심사 하도록 하는 권한과 이단의 교리와 난잡한 삶을 사는 성직자들과 대학교수들을 해고하는 권한까지 주어진 의원회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약 40여명의 성직자들이 이러한 직무를 맡게 된다. 이후 공의회는 명령으로 소시니아니즘에 대항하여 『복음주의의 옹호』(Vindiciae Evangelicae)를 저술하게 된다.

또 『죄의 죽임에 관하여』(On the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내놓게 된다. 이 논문은 오웬의 논문 중에 백미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문으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것이다.

오웬은 청교도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양심과 예배와 참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을 세상에서 성실하고 온전하게 수행했던 사람이었다. 이후에 크롬웰에게 왕과 왕관을 부여하자는 의원회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반대세력에 서서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된다. 오웬은 이일을 통해서 크롬웰로부터 옥스포드 부총장직에서 파면 당하게 되었다. 오웬은 이 일 후로는 교회정치에는 개입을 하지만 국가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게 된다.

6. 교회정치와 저술사역

옥스포드의 부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오웬은 1658년에 사보이선언(Savoy Declaration)¹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 교회 성직자와 대표자

15) '오웬'은 학자와 설교자의 이 두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던 '토마스 구드윈' (Thomas Goodwin)과 마찬가지로 당시 독립교회파의 일원이며 칼빈주의자 였다. 그가 1658년 회중교회의 목회자 모임인

들이 그들의 신앙과 직제를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것이다.

몽크 장군이 런던에 입성하고 군주제에 대한 복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군주제가 복원되면서 청교도들에게 어둠이 드리워진다.

찰스 복귀 몇 달 전에 오웬은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의 학장직에서 쫓겨나고 옥스퍼드와의 공식적 관계도 끊어지고 그는 스타드햄 부근의 작은 고향 마을의 목회자로 있으며 『떼올로구우메나』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다.

찰스의 박해가 점점 커져 가며 마침내 비국교도 목회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지 5마일 밖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는 추방령을 내림으로 비국교도들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오웬은 3가지의 위대한 작품을 기술하여 출판하게 된다.¹⁶⁾

다시 박해가 재개 되었을 때 오웬은 많은 핍박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는데 특별히 존 번연을 돕기 위해 열심을 다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웬은 이후로도 많은 저술들을 남기게 된다.¹⁷⁾

7. 말기사역

고된 연구와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생겨난 병세가 악화된 오웬은 데이빗 클락슨, 알렉산더 쉘즈 등과 같은 여러 집필자들의 도움을 힘입어 1677년 『칭의의 교리에 관하여』(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을 완성하여 출간하였다. 오웬은 이후로 개신교도들의 연합을 원하며 『개신교도들 간의 연합에 관하여』(On Union among Protestants)를 집필하게 된다.

오웬은 『그리스도의 영광 강론과 묵상』(Meditations and Discourses on the Glory of Christ)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집필하게 된다. 그리고 1683년 8월24일 존 오웬은 그의 생을 다하게 된다.

런던의 사보이 팰리스(Savoy Palace)에 참여해서 「사보이 선언」(The Savoy Declaration)을 초안했다. 박영호, 『청교도 실천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2), 199.

16) 박해시에 존 오웬은 자신의 명작 중 3작품인 「내재된 죄에 관하여」(On Indwelling Sin)과 「시편130편 강해」(Exposition of the 130th Psalm)과, 「히브리서강해」(Exposition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를 모두 1668년 에 출간된다. 앤드류툼슨 지음. *op. cit.*, 139~140.

17) 「성령에 관한 강론」(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은 동일한 주제에 관해 영어로 쓰인 작품 중 가장 포괄적이고 충만한 작품이다. *Ibid.*, 157.

8. 사상

존 오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석한 두뇌와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저술된 책들을 통하여 표현했다. 그의 저술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들은 개혁주의 신학사상의 거대한 물줄기가 된 것이다.¹⁸⁾

오웬의 사상과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의 대답 속에 드러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이중적 구조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고이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사고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위엄과 권위를 깊이 생각하고 목상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사고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하고 죄악 된 상태를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¹⁹⁾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는 특히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심령의 악이 얼마나 비열한가를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유용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믿음이 끈고 순종하는 사람이다.²⁰⁾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18) 존 오웬은 하나님의 생명인 교회 안에 위대한 원칙을 나타내고 부흥시키기 위해 교회의 전 세대에 걸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부류이다. 신앙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성경의 최고 권위,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양심의 권리, 계시된 특정 진리가 개인적 믿음에서 기인하고 거룩한 삶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형태로서의 신앙 뿐 아니라 영적인 신앙, 세상과 구별되는 사회로서의 교회를 위해 종종 화염과 피 가운데 투쟁했던 이러한 원칙들은 오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본보기들 중 하나로 청교도주의적 진수라 할 수 있다. *Ibid.*, 189-190.

19) John Owen, *'The Nature And Power Of Indwelling Sin'*; There are two things that are suited to humble the souls of men, and they are, first, a due consideration of God, and then of themselves; - of God, in his greatness, glory, holiness, power, majesty, and authority; of ourselves, in our mean, abject, and sinful condition. John Owen, *The Works of John Owen vol. 6*, edited by William H. Gool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1 reprinting), 200.

20) John Owen, *'The Nature And Power Of Indwelling Sin'*; The man that understands the evil

되기에 앞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신학사상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죄를 근원적인 죄와 현상적인 죄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 할지라도 내재하는 죄가 있다고 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내재하는 죄를 죽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²¹⁾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알미니안 주의자들과의 피말리는 싸움에서도 그는 신자는 죄와의 끊임없는 사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며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얻어 모든 구원이 성취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죄에 대한 인식이 그의 모든 사상을 이루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죄의 세력이 어떻게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불법적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낸 위대한 신학자이다.

그는 또한 죄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에 있어서 탁월한 글들을 남겨 놓았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강론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밝혀 놓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다.²²⁾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가 죽음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그날 까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였고,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조소와 가족들(11명의 자녀와 부인)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시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 영광스러운 신학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었다.

of his own heart, how vile it is, is the only useful, fruitful, and solid believing and obedient person. *Ibid.*, 201.

21) 김남준, 「죄와 지배와 은혜의 지배」,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32-39.

22) 앤드류 톰슨 지음, *op. cit.*, 184-192.

이 오웬이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은 오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알미니안 주의적 신학 사상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²³⁾ 오웬의 신학사상은 참된 신앙을 사모하고 지키려는 자들과 개혁교회에 이어져 오고 있다.

23) 서창원, *op. cit.*, 5-21.

III. 존 오웬의 죄 죽임 교리

1. 성경적 근거

존 오웬의 죄 죽임 교리는 현대 신학에서 매우 생소한 개념이라 불리울 만큼 도외시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은 인간중심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사신신학, 신정통주의 등의 신학사상과 절대가치가 유실되게 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 오웬의 죄 죽임 교리를 변론하자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이다.

1) 구약성경의 증거

(1) 시편 78편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배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²⁴⁾ 또한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을 통해 나타난 엄청난 죄들을 묘사하고 있다.²⁵⁾

존 오웬은 시편 78편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하나님의

24)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78:12-16).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여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 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 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돌리셨도다” (시 78:23-28).

25)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 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시78:17-20).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교만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이유가 그들이 참된 회심을 통하여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없었음을 증언한다. 그들은 단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각성하는 것만을 반복했다고 설명한다.²⁶⁾

이것은 자기를 깨뜨리는 것 즉 죄를 죽이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 없고 죄 죽임의 교리를 확고히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 안에는 내재된 죄의 본성이 있기에 그것의 방향을 바꾸는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존 오웬은 시편 78편을 근거로 하여 논증한 것이다.²⁷⁾

26) John Owen, *'Of Spiritually Mindedness'*; 'Men in troubles, dangers, sickness, fears of death, or under effectual conviction of sin from the preaching of the word, will endeavour to think and meditate on spiritual thing; yea, they will be greatly troubled that they cannot think of them more than they do, and esteem it their folly that they think of any thing else: but as freedom and deliverance do approach, so these thoughts decay and disappear; the mind will not be compelled to give place unto them any more.' John Owen, *The Works of John Owen vol. 7*, edited by William H. Gool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1 reprinting), 280 ; John Owen, *'Of Spiritually Mindedness'*; Sometimes it ariseth from the sharpness of convictions, which will make men even roar in their prayers for disquietment of heart. And this may be where there is no true grace as yet received, nor, it may be, ever will be so; for the perplexing work of conviction goes before real conversion. And as it produceth many other effects and changes in the mind, so it may do this of great fervency in vocal prayers, especially if it be accompanied with outward afflictions, pains, or troubles. John Owen, *The Works of John Owen vol. 7*, edited by William H. Gool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1 reprinting), 291.

27) John Owen, *'Of spiritual mindedness'*; 'Inward force, as it may be called. This is by convictions. Convictions put a kind of a force upon the mind, or an impression that causeth it to act contrary unto its own habitual disposition and inclination. It is in the nature of water to descend; but apply an instrument unto it that shall make a compression of it and force it unto a vent, it will fly upwards vehemently, as if that were its natural motion. But so soon as the force of the impression ceaseth, it returns immediately unto its own proper tendency, descending towards its center. So is it with men's thoughts oftentimes. They are earthly, their natural course and motion is down wards unto the earth and the things there of; but when any efficacious conviction presseth on the mind, it forceth the egress of its thoughts upwards towards heavenly things. It will think much and frequently of them, as if that were their proper motion and course; but so soon as the power of conviction decays or wears off, that the mind is no more sensible of its force and impression, the thoughts of it return again unto their old course and track, as the water tends downwards.' *Ibid.*, 280.

(2) 다윗의 범죄²⁸⁾

다윗은 성경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난 후 거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인에게 잘못도 없이 도망 다니는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는 다른 이방 나라로 도피하여 살기 위하여 미치광이 노릇²⁹⁾ 까지 해야 했던 인고의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범죄 하지도 않았다. 죽음과 자신과의 거리가 한 걸음 차이³⁰⁾ 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그는 오히려 수많은 고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후 날마다 하나님을 긴장감 속에서 붙들었던 신앙을 놓치고 죄의 세력에 생각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게으름이 그를 엄습했고,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다. 이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이 사라진 상태였으니 곧 죄 된 생각이 일어났고, 죄 된 생각은 다윗 속에 내재하고 있던 정욕을 부추기고 자극하여 죄를 짓게 하였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총체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므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죄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모략을 쓰는 상태가 된 것이다. 다윗에게 들어온 죄는 다윗에게 있던 모든 은혜의 통치를 파괴하고 불법적 정부를 세워서 다윗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생각은 자꾸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합리화 하도록 허탄한 생각을 붙여넣었고, 정서는 탐욕스러워졌고, 의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방인 출

28)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 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 가니라” (삼하 11:4).

29)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삼상 21:12-13).

30)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 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 이니라” (삼상 20:3).

신 장수를 고의로 죽도록 하였다.

이 사람이 과연 그 수많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동일인물이다. 죄는 다윗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고, 굳어지게 하여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윗은 물론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자신 안에 내재한 죄를 죽이지 않았을 때 엄청난 죄의 세력에 붙들려 죄의 불법적 지배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2) 신약성경의 증거

(1) 갈 5:17³¹)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고 했다. 바울은 분명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새로운 본성에 순응하며 그 새로운 본성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존 오웬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게 되고 그 새로운 본성은 육체의 소욕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논증한다.³²⁾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본성으로 죄

31)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갈 5:17).

32) John Owen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This is one main reason why the Spirit and the new nature is given unto us, -that we may have a principle within where by to oppose sin and lust. " The flesh lusteth against the Spirit." Well! and what then? Why, " The Spirit also lusteth against the flesh," Gal. v. 17. There is a propensity in the Spirit, or spiritual new nature, to be acting against the flesh, as well as in the flesh to be acting against the Spirit',

와의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2) 벧후 1:43³³)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약속 안에서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바 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신자에게 죄 죽임의 삶이 필연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다.

(3) 히 3:13³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회심자들에게 신자가 회심한 후에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가 이러한 죄와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본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도우심을 무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신자가 참된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 즉 하나님과 원수 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회심한 상태가 되면 그 속에 심겨진 새로운 본성이 죄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필연을 지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신자가 된 이유가 죄와의 싸움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의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얻은 것이라고 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러한 싸움을 거부하게 되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악심의 상태인 강박에 이르게 됨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다.

John Owen, *Vol. 6., op. cit.*, 12-13.

33)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벧후 1:4).

34)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 3:13).

(4) 롬 7:21³⁵)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 죄의 잔재는 남아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구약성경의 증거는 신자는 죄와의 싸움에서 면제된 자들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의 의무가 오히려 필연의 의무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죄 죽임의 의무는 하나님의 최고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자의 자세이다. 존 오웬은 이러한 죄 죽임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지혜, 은혜와 사랑에 대항하는 죄라고 논증한다. 또한 존 오웬은 신자가 매일 매일 죄 죽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말라죽고, 정욕은 번창하고 마음의 틀은 점점 악화된다고 했다.³⁶⁾

필자가 언급한 본문들은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성도의 죄 죽임의 삶에 대한 일부분임을 밝혀둔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감 된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인 죄를 죽이는 삶을 거부하였을 때 나타나는 비참한 결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죄 죽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35)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롬 7:21).

36) John Owen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The contest is for our lives and souls. not to be daily employing the Spirit and new nature for the mortifying of sin, is to neglect that excellent succour which God hath given us against our greatest enemy. If we neglect to make use of what we have received, God may justly hold his hand from giving us more. His graces, as well as his gifts, are bestowed on us to use, exercise, and trade with. Not to be dally mortifying sin, is to sin against the goodness, kindness, wisdom, grace, and love of God, who hath furnished us with a principle of doing it. John Owen, *vol. 6., op. cit.*, 13

2. 죄 죽임 교리의 신학적 정당성

1) 죄 죽임의 필요성과 그 이유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죄 죽임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대답은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의 상태에 빠져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구속함을 입은 성도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죄 죽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을 향한 무수한 명령들은 불필요한 권면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 하는 성경의 증거는 무수히 많다.³⁷⁾

(1) 골 3:5

성경의 많은 증거들 중에서도 골로새서 3장 5절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죄 죽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땅의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가 개혁교리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증거 해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즉 신자가 된 자들에게 음란과 같은 악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³⁸⁾ 골로새 교인들

37)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5);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살전 4:7-8).

38) John Owen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It is known that this duty is frequently enjoined and prescribed unto us: Col. iii. 5, "Mortify therefore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fornication, uncleanness, inordinate affection, evil concupiscence, and

은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들인데 그들에게도 육체의 정욕을 좇아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세상 적이고, 정욕적인 것, 음란한 것, 등의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존 오웬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좇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땅의 속한 정욕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지체를 죄의 요소로 보았고, 죄가 들어오는 경로이고 죄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³⁹⁾

(2) 고전 9:27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다.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할 강력한 세력의 상태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자가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 죄의 유혹을 대할 때 자신의 본성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성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과 도탄으로 빠뜨린 죄와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이기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Εν τῷ φεγγεῖν may be supplied. " 'Mortify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that I is, your carnal, earthly affections; avoiding (or 'by avoiding') 'fornication,'" etc.: and so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carnal affections and their fruits. Or, the special sins mentioned are instances of these carnal affections: "Mortify your carnal affections,"—namely, fornication and the like; wherein there is a metonymy of the effect for the cause. John Owen, *The Works of John Owen* vol. 3, edited by William H. Gool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1 reprinting), 539.

39) John Owen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That the choicest believers, who were assuredly freed from the condemning power of sin, ought yet to make it their business all their days to mortify the indwelling power of sin. So the apostle, Col. iii. 5, "Mortify therefore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Whom speaks he to? Such as were "risen with Christ," verse 1. such as were "dead" with him, verse 3. such as whose life Christ was, and who should "appear with him in glory," verse 4. Do you mortify; do you make it your daily work; be always at it whilst you live; cease not a day from this work; be killing sin or it will be killing you. Your being dead with Christ virtually, your being quickened with him, will not excuse you from this work. John Owen, *vol. 6, op. cit.*, 9.

2) 죄 죽임 교리와 하나님의 은혜

(1)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주신 은혜가 신자에게 모든 죄의 오염과 부패성까지 소멸한 것이었다면 신자는 계속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염과 부패성을 남겨 두시고 내재하는 죄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아래 계속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는 죄 죽임을 통해 계속 보존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⁴⁰⁾

(2) 죄 죽임이 없이는 은혜도 없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가 자신 안에 내재하는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모든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효적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죄 죽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신자에게도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붙들 수도 없고 주어진 다 하더라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행사가 없다.⁴¹⁾ 그러므로 오직 죄를 죽이는 신자만이

40) John Owen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This, therefore, is the principal way and means which we have to ' secure our peace and comfort against the pretences of sin unto the disquietment of our consciences. Let us endeavour to preserve an experience of the rule of grace in our hearts, Col. iii. 15.' John Owen, *vol. 7, op. cit.*, 513.

41) John Owen,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It doth so by keeping up a constant exercise of grace in all religious duties, or at least a sincere endeavour that so it may be. Where sin hath the dominion, it can allow the soul to perform religious duties, yea, in some cases to abound in them; but it will take care that divine grace be not exercised in them. Whatever there may be of delight in duties, or other motions of affection, which light, and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이다.

(3) 죄 죽임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상호작용)

신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강력하게 몰아낸다. 만일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신자는 절대로 죄를 죽일 수 없다. 신자가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이다.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 죽임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면 죄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고 그로인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복되게 자라게 되는 것이다. 죄 죽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잡초와 무수한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은혜의 나무는 잘 자라게 될 것이다.⁴²⁾

gifts, and afflictions, and superstition, will occasion, there is 10 exercise of faith and love in them; this belongs essentially and inseparably unto the rule of grace. Wherever that bears sway, the i soul will endeavour the constant exercise of grace in all its duties, and never be satisfied in the work done without some sense of it.' *Ibid.*, 514.

42) John Owen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Mortification prunes all the graces of God, and makes room them in our hearts to grow. The life and vigour of our spiritual lives consists in the vigour and flourishing of the plants of grace in r hearts. Now, as you may see in a garden, let there be a precious herb planted, and let the ground be untilled, and weeds grow bout it, perhaps it will live still, but be a poor, withering, unuseful thing. You must look and search for it, and sometimes can scarce ad it; and when you do, you can scarce know it, whether it be the plant you look for or no; and suppose it be, you can make no use of at all. When, let another of the same kind be set in the ground, naturally as barren and bad as the other, but let it be well weeded, and every thing that is noxious and hurtful removed from it,—it flourishes and thrives; you may see it at first look into the garden, and ,have it for your use when you please. So it ls with the graces of the Spirit that are planted in our hearts. That is true: they are still, they abide in a heart where there is some neglect of mortification: ut they are ready to die, Rev. iii. 2, they are withering and decaying. The heart is like the sluggard's field,—so overgrown with weeds hat you can scarce see the good corn. Such a man may search for faith. love. and zeal, and scarce be able to find any: and if he do discover that these graces are there yet alive and sincere, yet they are so weak, so clogged with lusts, that they are of very little use; they remain, indeed, but are ready to die. But now let the heart be cleansed by mortification, the weeds of lust constantly and dally rooted up (as

신자에게 실천되고 있는 죄 죽임의 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 죽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죄 죽임 교리에 대한 신자의 의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죄 죽임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너무도 팽배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신자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버려 거의 도덕폐기론에 가까운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이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재기하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속하심은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려 함⁴³⁾ 이라는 성경의 구속함의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저버렸을 때의 엄중한 경고를 망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교리적 오해로 인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고 신자가 마땅히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들이 행해지지 않아 경건한 무리들이 끊어지고 있어 시편 기자의 기도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도소이다 (시 12:1).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듭난 신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스려 싸우는 죄에 대한 혐오감과 싫어함의 정서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를

they spring daily, nature being their proper soil), let room be made for grace to thrive and flourish,—how will every grace act its part, and be ready for every use and purpose!’ John Owen. *vol. 6, op. cit.*, 23.

43)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 10:29)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 이니라” (살전 4:7-8).

죽이는 일에 대한 의무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1)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자녀로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을 통하여 친히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신자는 결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는 종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죄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신자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명령받는 신자는 반드시 죄 죽임을 감당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도 이 죄 죽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2) 내재하는 죄의 존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신자에게도 죄는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죄는 신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여 신자 안에 내재한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존재는 신자가 죄와 상관없는 상태가 아니며, 내재하는 죄를 죽이여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다.

(3) 죄 죽임의 근본적 실천

신자에게 죄 죽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

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육신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⁴⁴⁾ 이것은 죄 죽임의 근본적인 실천이다. 신자는 날마다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⁴⁵⁾

4)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신자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함을 입은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내재하는(Indwilling) 죄가 오염과 부패성으로 남겨져 있다.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끊임없이 반목하며 대항하여 싸운다.

(1) 긍정적인 강화

a)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이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

44) John Owen,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We have a "body of death," Romans 7:24; from whence we are not delivered but by the death of our bodies, Philippians 3:21. Now, it being our duty to mortify, to be killing of sin whilst it is in us, we must be at work. John Owen. vol. 6., op. cit., 10.

45) John Owen,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The first is, the daily exercise of faith on Christ as crucified. This is the great fundamental means of the mortification of sin in general, and which we ought to apply unto every particular instance of it. This the apostle discourseth at large, Rom. vi. 6-13.' John Owen, vol. 7., op. cit., 527.

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의 존재가 없다면 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섭리로 구속함을 입은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를 남겨 놓으심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⁴⁶⁾ 둘째,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방대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의 존재가 없다면 신자는 용서받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에 대한 가볍고 경박한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신자에게 하나님이 내재하는 죄의 본성을 남겨 두신 것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숨 쉬는 동안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b)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⁴⁷⁾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우심이 신자 안에 내재한 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신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가득 찬 곳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46) John Owen,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Indwelling sin always abides whilst we are in this world; therefore it is always to be mortified. The vain, foolish, and ignorant disputes of men about perfect keeping the commands of God, of perfection in this life, of being wholly and perfectly dead to sin, I meddle not now with. John Owen, *vol. 6, loc. cit.*

47) John Owen,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We dare not speak as though we had already attained, or were already perfect, Philipians 3:12. Our "inward man is to be renewed day by day" whilst here we live, 2 Corinthians 4:16; and according to the renovations of the new are the breaches and decays of the old. Whilst we are here we "know but in part, 1 Corinthians 13:12, having a remaining darkness to be gradually removed by our "growth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2 Peter 3:18; and "the flesh lusteth against the Spirit, so that we cannot do the things that we would, Galatians 5:17: and are therefore defective in our obedience as well as in our light, *Ibid.*, 10.

하시기 위하여 내재하는 죄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c)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나 신자가 스스로 크신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게 하신다. 신자가 내재하는 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고, 발견한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은 신자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강력하게 느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⁴⁸⁾ 라고 말한 것은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두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재하는 죄를 두고 한 말이다.

(2) 부정적인 강화

a) 분투하는 삶을 요구함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존재는 신자로 하여금 날마다 죄를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만일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가 없다면 신자는 매일 매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없다. 신자가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신자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와 분투하며 싸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싸울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아름다운 것이다.

48)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 5:20).

b) 죄를 향한 혐오감

신자는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의 존재로 인하여 죄에 대한 현재적이며 현실적인 혐오감을 가지게 된다. 내재하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신자는 죄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마음에 끊임없이 죄를 향한 은밀한 열망을 가지고 있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재하는 죄를 날마다 깨달아 갈 때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3. 죄의 본질과 그 지배의 방법

1) 죄 발생의 요인

신자에게도 죄가 발생하는 근본 된 요인은 신자가 거듭났다 해도 그 속에 오염과 부패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존 오웬은 이것을 내재하는 죄성이라 불렀다. 죄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효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데 있다. 또한 죄가 신자의 삶속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파괴하려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는 속임과 강압과 유혹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2) 죄의 지배의 방법

죄는 신자를 지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지배하고 신자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으로 급속하게 돌아가게 한다. 죄가 이미 거듭난 신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하는 일들이 불법적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서 죄는 속이기도 하고 강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한다. 또한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을 심분 활용한다.

(1) 속임

죄는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속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죄가 신자를 속일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첫째, 죄의 본래적인 목적을 은닉함으로 속인다. 만일 죄가 신자에게 죄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라고 말한다면 그 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작은 죄를 사용하여 그 작은 개별적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러한 사단의 방법은 개별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죄들을 자꾸 늘려감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다.⁴⁹⁾

둘째, 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케 함으로 신자를 속인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적이며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신자가 죄를 감지한다 할지라도 범죄 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신자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함으로 더욱 손쉽게 죄를 짓게 할 것은 분명하다. 셋째, 범죄 함으로 얻는 즐거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갖도록 속인다.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49) John Owen,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These actings are various, according to the variety of lusts in the minds of men; but its general design in them all is dominion. Where any one is tempted and seduced of his own lusts, as the apostle James speaks, be it in a matter never so small or so unusual, the temptation whereunto may never occur again, the design of sin lies not in the particular temptation, but to make it a means to obtain dominion over the soul. And the consideration hereof should keep believers always on their guard against all the motions of sin, though the matter of them seem but small, and the occasions of them such as are not like to return; for the aim and tendency of every one of them is dominion and death, which they will compass if not stopped in their progress, John Owen, *vol. 7, op. cit., 507.*

은 유한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게 되면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귀한 것과 범죄 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영혼의 고통은 숨기는 것이다.

(2) 강압

강압의 죄의 역사는 신자가 자신에게 있는 죄의 욕구에 대항하거나 습관적인 죄에 항거할 때 강하게 느끼게 된다.

첫째 죄의 강압, 곧 힘은 죄의 욕구와 실행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고집으로 나타난다. 즉 죄의 욕구를 유지함으로써 느끼는 은밀한 마음의 즐거움에 강하게 집착할 뿐 아니라 죄의 실행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현재 짓고 있는 죄를 그만두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재산을 잃는 다는 것을 알아도 그 죄의 욕구에 집착하게 한다.

둘째로 죄의 강압은 그 욕구를 거절하였을 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미래의 손해나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 강하게 신자를 압박한다. 죄의 욕구와 싸우지 않을 때는 죄의 강압을 느낄 수 없지만 죄의 욕구와 더불어 싸우거나 거절해 보면 죄의 욕구가 얼마나 강력하게 신자의 마음을 몰아가는지를 느낄 수 있다.⁵⁰⁾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죄의 강압을 롬 7:21절에서 한 법 즉, 죄의 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보았다.⁵¹⁾

50) 만일 우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는 죄와 한 번 결단을 하고 그 죄를 삶속에서 몰아내려고 하면 죄의 욕구는 강력한 힘으로 저항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힘으로 내려가는 거대한 강줄기 속에서 그냥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는 흐르는 물의 강력한 힘을 느끼지 못하지만 물의 흐름과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51) 롬7:21 사도바울이 죄의 강압에 부여한 이름은 한 법이다. 사도는 본문에서 한 법(τὸν νόμον)이라고 했고 또 선(τὸ καλόν) 과 악(τὸ κακόν)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랍어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붙은 것으로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선과 악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함께 있다(παρὰ κείτοι) 라 함은 근접해 있다. 또는 ...할준비가 되어있다 를 의미하는 직설법 현재, 중간태 3인칭 남성단수이다. 이것을 통해 그는 죄의 힘과 영향력을 표현한다. 김남준, Idem. 77; 그가 이 법을 발견하게 된 곳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죄의 본질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 안에서였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죄의 법을 가진 사람의 내면과 영혼의 틀은 선을 행하기 원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영혼이 이 틀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이 법은 그 영혼 안에 함께 존재하며 선에 대항하여 활동

(3) 유혹

유혹은 악이 사용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법이다. 처음 인간에게 악이 사용하였던 것도 유혹의 방법이었다. 악은 최초의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지 느슨한지 살펴본 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되어 있지 못함을 발견하고 곧바로 사용한 방식이 바로 유혹이었다.

a) 유혹의 정의

유혹의 죄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내면에 한 가치로서 들어와 있는 신자에게 죄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죄는 유혹하지 않는 것이다.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신자 안에 있는 은혜의 효력을 없앨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질 때 신자 안에 오염과 부패로 잔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은밀히 부추겨서 신자 스스로 죄를 택하게 하는 것이다.

b) 유혹의 목적

유혹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복종을 향한 인간의 마음과 정서를 벗어나게 하여 죄의 갖가지의 경우로 향하게 한다.

특히,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마음에 악을 가지고 오거나, 마음으로 부터 악을 표출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연합으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그 의무로 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⁵²⁾

한다. John Owen, *'The Nature, Power Deceit, and Prevalency of' the Remainder of Indwelling Sin in Believers'*; together with the ways of its working and means of prevention, opened, evinced, and applied; with a resolution of sundry cases of conscience thereunto appertaining, John Owen, vol. 6., op. cit., 157-158.

52) John Owen,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The Danger of Entering Into it ; and The Means of Preventing That Danger'; Temptation, then, in general, is anything, state, way, or condition that, upon any account whatever, hath a force or efficacy to seduce, to draw the mind and great of a man from its obedience, which God requires of him, into any sin, in any degree of it whatever. In particular, that is a temptation to any man which causes or

c) 유혹의 대상

유혹의 대상은 모든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에 타락한 본성이 내재해 있다. 유혹은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다. 악은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은 대상에게 유혹할 수 없다.

성경에 어떤 부분에서도 신자가 유혹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약속은 주어지지 않다. 오직 유혹되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유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혹은 원죄의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⁵³⁾

d) 유혹으로 들어간 상태

신자가 죄에 빠질 때에는 전 단계가 반드시 있다.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유혹으로 들어가서 붙잡게 되고, 열매 맺은 결과물이다. 비록 갑작스럽게 죄에 노출되는 예외적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죄가 노출되기 전에 전단계인 유혹의 단계가 존재한다.⁵⁴⁾

occasions him to sin, or in any thing to go off from his duty, either by bringing evil into his heart, or drawing out that evil that is in his heart, or any other way diverting him from communion with God, and that constant, equal, universal obedience, in matter and manner, that is required of him *Ibid*, 96.

53) John Owen,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This is not merely to be tempted. It is impossible that we should be so freed from temptation as not to be at all tempted. whilst Satan continues in his power and malice, whilst the world and lust are in being, we shall be tempted. " Christ," says one, " was made like unto us that he might be tempted; and we are tempted that we may be made like unto christ." Temptation in general is comprehensive of our whole warfare, as our Saviour calls the time of his ministry the time of his " temptations," Luke xxii. 28. We have no promise that we shall not be tempted at all; nor are to pray for an absolute freedom from temptations, because we have no such promise of being- heard therein. The direction we have for our prayers i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Matt. vi. 13; it is " entering into "temptation" that we are to pray against. We may be tempted, yet not enter into temptation. so that ' *Ibid*, 97.

54) John Owen,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When a man is drawn into any sin, he may be sure that he hath entered into temptation. All sin is from temptation, James i. 14. sin is a fruit that comes only from that root. Though a man be never so suddenly or violently surprised in or with any sin, yet it is from some temptation or other that he hath

유혹을 받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유혹을 수용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다.

(a) 내면의 부패성이 자극을 받을 때

인간의 내면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겨져 있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부패성이 무엇인가에 의해 자극을 받아 상상의 영역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면 시험의 때라고 보아야 한다. 큰 죄의 역사가 없이도 인간의 부패의 물줄기의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강한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면, 수치스러운 죄에 급히 빠져들게 된다.⁵⁵⁾

(b) 은밀한 유혹에 생각이 노출 될 때

유혹은 직접적인 죄는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부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자는 유혹을 경계하여야 한다. 유혹은 신자에게 스스로 죄를 짓도록 만든다. 이 때 가장 흔히 유혹은 신자의 생각을 향해 공격한다. 생각이 유혹에 노출되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직 죄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죄를 짓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영역 속에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효적 영향력 아래 노출된 것이다.⁵⁶⁾

been so surprised: so the apostle, Gal. VI 1 " *Ibid.*, 117.

55) John Owen,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Men's lusts will infallibly (if not mortified in the death of Christ) carry them into eternal ruin, but oftentimes without much noise,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e stream of their corruptions; but let the wind of strong temptations befall them, they are hurried into innumerable scandalous sins, and so, broken upon all accounts, are swallowed up in eternity. *Ibid.*, 118.

56) John Owen,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Entering into temptation may be seen in the lesser degrees of it; as, for instance, when the heart begins secretly to like the matter of the temptation, and is content to feed it and increase it by any ways that it may without downright sin. *Ibid.*, 119

(c) 삶의 상황이 시험의 때일 때

신자의 삶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가 죄에 노출되지 않게 환경을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느 순간 정욕과 유혹의 상황으로 덮힐 때가 있다. 신자가 이러한 정욕과 유혹을 직접 붙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정욕과 유혹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이다.⁵⁷⁾

(d) 의무에 대해 형식화될 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하여 죽으심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 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5).

신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자가 유혹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산란해지면 신자는 의무에 대해 형식적이 되거나, 태만하게 되고, 부주의하게 되고, 의무를 행하는데 생명력이 없다. 또한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인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분명 신자가 유혹에 노출되어 유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⁵⁸⁾

57) John Owen,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When by a man state or condition of life, or any means whatever, it comes to pass that his lust and any temptation meet with occasions and opportunities for its provocation and stirring up, let that man know, whether he perceive it or not, that he is certainly entered into temptation. *Ibid*, 120.

58) John Owen,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When a man is weakened, made negligent or formal in duty, when he can omit duties or content himself with a careless, lifeless performance of them, without delight, joy, or satisfaction to his soul, who had another frame formerly; let him know, that though he may not be acquainted with the particular distemper wherein it consists, yet in something or other he is entered into temptation. *Ibid*,

e) 유혹에 들어간 신자에 대한 처방

첫째 하나님께 유혹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해줄 것을 강청해야 한다. 신자는 이러한 강청하는 과정을 통하여 죄의 힘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둘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 셋째 죄로부터 해방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넷째 유혹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에 의해서 유혹의 문이 만들어져서 제방이 터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에 또 다시 유혹의 공격에 노출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쉽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⁵⁹⁾

4. 죄 지배의 징후와 벗어남

1) 죄의 지배의 징후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부당한 거역이요 반역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면 명백하고도 분명한 징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후에 전개되는 죄의 징후들은 죄의 계획에 의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

121.

59) John Owen,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Meet thy temptation in its entrance with thoughts of faith concerning Christ on the cross; this will make it sink before thee. Entertain no parley, no dispute with it, if thou wouldst not enter into it. Do as Paul did: beseech God again and again that it may "depart from thee, 2 Corinthians 12:8. And if thou abidest therein, thou shalt certainly either be speedily delivered out of it, or receive a sufficiency of grace not to be foiled utterly by it. Fly to Christ, in a peculiar manner, as he was tempted, and beg of him to give thee succor in this "needful time of trouble. Hebrews 4:16, Look to Him who hath promised deliverance. Consider that he is faithful, and will not suffer thee to be tempted above what thou art able. Consider that he hath promised a comfortable issue of these trials and temptations. Call all the promises to mind of assistance and deliverance that he hath made; ponder them in thy heart. Consider where the temptation wherewith thou art surprised hath made its entrance, and by what means, and with all speed make up the breach. Stop that passage which the waters have made to enter in at. Deal with thy soul like a wise physician.' *Ibid.*, 135-137.

(1) 특정한 죄가 생각을 지배함

죄가 특정한 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게 함으로 사고 기능에 장기적으로 간여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뚜렷한 징후이다. 죄는 제일 먼저 신자의 생각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느끼고 느낀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 의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a) 생각을 통한 죄의 진보

범죄에 대한 상상은 신자가 죄를 짓고 싶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제약을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인다. 죄 된 생각이 신자의 생각에 들어와서 그 사고에 간여하게 되면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모든 거룩한 신앙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된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⁶⁰⁾ 이렇게 은혜로부터 떨어진 신자는 명백한 죄의 징후를 가지게 된다.⁶¹⁾ 이렇듯 죄 된 생각과 상상을 통해 일어난 생각의 허탄함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60) John Owen,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The first way whereby sin acts itself, or coins its motions and inclinations into acts, is by the imagination, Gen vi. 5. The continual evil figments of the heart are as the bubbling of corrupt waters from a corrupted fountain. John Owen. vol. 7., op. cit., 520.

61) 존 오웬은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징후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중 상상력을 통한 죄의 발전을 매우 심도 깊게 다룬다. 이것은 죄의 시작이요 태동이라고 보았다. 외부로 드러는 범죄 함이 삶의 환경에 의해 차단될 때 죄는 상상력을 통해 활동한다고 하였다. 죄가 스스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상상력에 의해 시작되며 이렇게 시작된 상상력은 죄의 잉태를 위하여 끊임없는 악한 것들에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 생각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려한다. John Owen,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When sin hath in any instance possessed the imagination, and thereby engaged the cogitative faculty in its service, it is a dangerous symptom of its rule or dominion. Sin may exercise its rule in the mind, fancy, and imagination, where bodily strength or opportunity gives no advantage for its outward perpetration. In hem the desires of sin may be enlarged as hell, and the satisfaction of lust taken in with greediness. Pride, and covetousness, and sensuality, may reign and rage in the mind by corrupt imaginations, when their outward exercise is shut up by circumstances of life. *Ibid*, 520.

의 생명을 자주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한 상태가 되게 한다.⁶²⁾

b) 은혜의 지배 아래서의 생각의 범죄와의 상이점

은혜의 지배 아래서도 생각 속에 일어나는 범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범죄와는 자못 상이하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생각의 범죄는 불연속적이며 간헐적이다. 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 일어나는 생각의 범죄는 연속적이며, 지속적이다. 은혜 아래 있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간헐적인 범죄에 대한 생각은 신자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닌 상태이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서의 생각의 범죄는 다르다.

(a) 사고의 기능에 지속적으로 간여함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도 역시 죄 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러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은

62) 존 오웬은 생각의 허탄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의 영혼을 멀어지게 한다고 했으며, 순전한 대상에 지속적으로 고정되기를 거부한 생각은 죄의 즐거움과 욕망의 이익을 향한 상상력과 또 다른 생각들에 의해 좌우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의 회복을 위하여 헛된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 죄의 즐거움과 욕욕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을 포기할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하며 마음이 합당한 목적에서 벗어나, 합당한 목적을 싫어하고, 그 마음을 죄에 대한 기쁨과 유익들에 기울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이며 그 마음은 더러운 정욕들로 가득 찬 상태가 된다. 고 하였다. John Owen,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This is the first and proper effect of that vanity of mind whereby the soul is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The mind being turned off from its proper object, with a dislike of it, applies itself by its thoughts and imaginations unto the pleasures and advantages of sin, seeking in vain to recover the rest and satisfaction which they have forsaken in God himself: "They follow after lying vanities, and Forsake their own mercies," Jonah ii. 8. And when they give themselves up unto a constant internal converse with the desires of the flesh, the pleasures and advantages of sin, with delight and approbation, sin may reign triumphantly in them, though no appearance be made of it in their outward conversation. Such are they who have "a form of godliness, but deny the power thereof," their hearts being filled with a litter of ungodly lusts, as the apostle declares, 2 Tim. iii. 5. *Ibid.*, 520.

혜의 작용 때문에 생각에 계속되는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지 않는다.⁶³⁾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신자는 다르다. 이들은 특정한 죄에 대한 욕망이나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영혼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죄 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죄 된 생각과 상상력이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의 모든 작용들에서 우세한 자리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b) 마음으로 죄의 의도를 받아들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라 해도 그 내면에 부패성이 아직 남아있기에 얼마든지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마음에 착상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의지의 저항을 받거나 정서의 반감을 사거나, 생각의 감시로 인해 이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상상 속에 일어나는 죄의 모든 작용들에 대해서 정서적 기능들이 죄에 친화적인 상태에 놓여있기에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상상들이 마음의 기능 중에 정서에 유착되는 것이 훨씬 쉽고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 죄를 실행했을 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즐거움에 마음의 중심이 쏠려 있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상상하거나 짓게 되었을 때 잃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다.

특정한 죄가 신자의 마음에 상상력을 통해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악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상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자신의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음란하듯 사랑하게 하는 정욕⁶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불신

63)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생각의 틀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서 그 더러운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떠다니게 되어서 분절적이며 간헐적으로 생각이 나다가 그냥 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다.

6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벧후 2:14).

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미움⁶⁵⁾ 등이 있다 하였다.

(2) 특정한 정욕이 정서를 장악함

특정한 정욕이 신자의 정서를 장악하게 되는 경우는 신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때문이다. 특정한 죄가 신자의 마음에 부지불식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자의적인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죄가 신자의 마음의 틀⁶⁶⁾ 중 생각의 기능 즉 사고에 연속적으로 간여하게 되어 정서를 자극하게 되는 것은 신자의 의지적 선택의 죄의 결과이다. 신자에게 반복되는 죄의 상상으로 생각과 사고의 기능에 간여하는 단계가 되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정서적 즐거움을 자꾸 생각나게 함으로 더욱 특정한 어떤 죄에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지성을 통하여 모든 것들 식별하고, 정서를 통하여 그것에 대하여 좋고 싫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의지는 정서를 따라 간다. 따라서 사람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고 풍부할 때 정확하고 오류가 없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은혜의 상태에서 정서는 지성에 의하여 잘 통제되는데 죄가 정서를 지배하게 되면 신자는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⁶⁷⁾ 그래서 흔히들 많은 신자들이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움직여지지를

65) 미워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쉽게 생각에 접근하고 사고의 전 기능을 주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움은 음란과 함께 죄의 본성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죄로, 죄 안에 있는 광기와 맹렬함을 미움처럼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죄도 흔치 않다. 미움을 가지게 되면 그 미움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먼저 남을 죽이는 죄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죽이는 죄가 되기도 한다.

66) 존 오웬은 자신의 전집 *'The Grace And Duty Of Being Spiritually Minded'* vol. 7, 에서 마음의 틀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마음의 틀의 요소로 생각, 정서, 의지라 하였다.

67) 칼빈은 범죄 하기 전 아담에 대해서 말하기를 올바른 지성을 소유하고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한다. 'Accordingly, by this term is denoted the integrity with which Adam was ensued when his intellect was clear, his affections subordinated to reason, all his excellence to the admirable gifts of his Maker.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않는다고 호소하는 그러한 상태와 일치한다. 정서가 죄의 모든 지배를 인하여 지배를 당하여서 자신이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인식하면서도 그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정서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정서가 죄 된 것들과 불순종의 모든 것들 사모하며 그러한 죄 된 것에 호감어린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정서의 타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사람이며 그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다.

(3) 확인된 죄를 버리지 못함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죄는 존재한다. 하지만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신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 줄 몰랐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은혜의 효력으로 쉽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죄라고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결코 쉽게 그 죄를 자신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신자의 내면에 그 죄가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저항하려고 하는 신자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이다.⁶⁸⁾ 공격당한 신자의 마음은 확인된 죄를 혐오하며 그 죄를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죄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심령에 확인된 죄가 남아 있다는 것은 죄가 불법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죄의 지배의 징후 중에

vol. 1,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reprinting), 164.

68)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이미 파악된 죄가 있음에도 그것을 떨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고의 기능은 죄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정서는 그 죄에 대해 애착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이 정서는 의지를 설득하여 그 죄를 수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주입한다. 죄는 해결(회개)되지 못하고 눈덩이처럼 쌓여서 신자 안에 남겨진 은혜의 작용을 소멸시켜 가는 것이다.

도 이 부분은 더욱 분명한 죄의 지배의 징후라 할 수 있다.

a) 죄에 대한 혐오감이 경감됨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신자에게 불법적 죄의 지배가 이루어져서 확인되고 인식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내면과 삶에 엄연히 존재하게 되는 과정의 첫 단계가 죄에 대한 혐오감의 경감이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경감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 욕구가 부추겨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신자의 삶에 기웃거리기만 해도 죄는 감시를 당하고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죄에 대한 혐오감이 경감되면 죄는 활동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b)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진 율법을 멀리함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의 적극적인 적대감으로 가득하다. 죄에 대한 처절한 투쟁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신다. 그래서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특징은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로 가게 되면 분명한 어조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매하고 모호한 동굴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불법적 세력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c) 죄에 대한 친밀감을 가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가지게 되면 신자의 내면 즉 마음의 틀은 죄에 대해 부당한 반응을 하게 된다. 원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충기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나 죄에게 설득당하여 죄에 대한 친

밀감을 가지고 그것을 은근히 열망하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d) 신자의 삶속에 출몰하는 죄

신자의 내면이 죄에 대한 적대감 대신 친밀감을 가지게 되면 신자의 삶속에 죄가 출몰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가 되면 죄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신자의 삶속에 등장하게 된다. 원래 신자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반대로 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e) 비싼 희생의 댓가를 치러야 죽일 수 있는 죄

신자는 결코 죄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과정을 통하여 죄가 신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결코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분명 불법적이다. 이러한 불법적 죄의 지배가 신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신자가 아무리 죄를 자각할지라도 죄를 결코 떨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만일 확인된 죄를 죽이려면 죄로 인해 오염된 자아와 성령의 절대적 도우심을 바라보며 처절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

(4) 마음의 굳어짐

신자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왜 마음의 굳어짐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죄는 영혼에 내재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 인간의 영혼을 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것은 이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이 사실을 죄의 세력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게 하는 것이 지상 목표로 삼는다. 이것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이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발판인 것이다. 이 마음의 굳어짐은 총체적 굳어짐과 부분적인 굳어짐으로 나누어진다.⁶⁹⁾

a) 총체적인 굳어짐

총체적인 굳어짐은 절대적인 굳어짐으로써 거듭나고 회심하지 아니한 불신자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상태이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어 돌이킬 수 없도록 굵어지고 어그러지게 만든 상태의 마음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⁷⁰⁾ 총체적으로 굳어진 마음 즉 불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도 하지도 않으려는 상태이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반감을 가진 상태이다.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바로의 마음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바로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러기에 나타난 재앙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따르는 듯 했으나 결코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다.

b) 부분적인 굳어짐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인 방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별적인 굳어짐들이 점점 결합하여서 총체적 굳어짐으로 가려고 하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인 굳어짐은 다른 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을 미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돌이키기가 용이한 상태

69) 김남준, *op. cit.*, 188.

70) 하나님께서 원래 베푸시던 은혜를 걷어가시므로 사람의 마음이 강박해 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는 두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제거됨으로써 발생한다. (2)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실시자인 사단을 통하여 거들의 마음의 굳어짐을 제거하던 억제력을 제거하심으로 자신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잘못된 목적을 정하게 하시며 의지를 격발하게 하시며 노력을 강화하도록 만든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광채가 제거되면 그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은 뒤틀리고 굵어진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reprinting), 267-268 ; *Ibid.*, 189.

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순종으로 이 부분적인 굳어짐은 완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모든 기대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득세하고 있는 죄를 인하여서 마음의 굳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시면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

c) 마음의 굳어짐의 원인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현상은 놀라울 정도로 신자의 거룩한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효과적으로 신자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마음이 굳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실제적인 원인, 굳어진 마음의 현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근원적인 원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천성적 부패성 때문이다. 신자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아직까지 죄의 부패성이 남아서 거의 불신자에게 가까운 모습이 되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에서 온갖 부패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언의 지혜자의 입을 빌어 신자들에게 당부하셨다.

무릇 지키기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b) 실제적인 원인

첫째로 죄를 짓기 때문이다. 우상숭배, 간음, 도적질 같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몸에 밴 게으름과 영적인 태만 등 신자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요인이다.⁷¹⁾ 그것이 크든 작든 신자의 마음을 굳

어지게 한다.

둘째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범죄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선제하게 되는 것이다.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여 신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⁷²⁾

(c) 굳어진 마음이 가지는 현상

신자의 마음은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마음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신자가 죄를 받아들임으로 중단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순식간에 굳어져 중생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룩한 질서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함

신자가 죄의 지배아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죄 즉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은혜 아래의 부드러운 마음일 때는 신자의 내면은 죄에 대하여 저항적으로 민감한 상태이며 그러므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의 깨달음도 분명하고 죄책감 또한 뚜렷하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그러나 죄의 지배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양심이 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죄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타협된 생각으로 합리화 하여 그 죄에 대

71) *Ibid.*, 192.

72) (1)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의 마음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2)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에 있어서 나타나는 마음에 대한 돌봄과 의식이다. (3) 우리 행동거지의 아름다움은 심령의 천상적인 틀과 신령한 질서에서 비롯된다. (4) 우리의 영혼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지킴에 많이 달려 있다. (5) 우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진은 마음지킴의 정도에 달려 있다. (6) 시험의 때에 우리 영혼의 안전함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의식하고 힘쓰는지에 달려 있다. John Flavel, *Keeping the Heart, originally titled, A Saint Indeed*; or the Great Work of a Christian Opened and Pressed from Proverbs 4:23. (Morgan: Soli Deo Gloria Publications, 1998), 11-21. ; *Ibid.*, 192.

한 돌이킴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죄책감 자체를 소멸하여서 계속 그 죄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악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마음이 굳어진 신자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미각을 잃는다는 것이다. 원래 은혜의 통치아래 있을 때 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에 있는데 만일 범죄 하게 되면 사모하고 열망하던 말씀이 심판과 환난을 선포하는 두려움의 말씀이 되어 버린다.⁷³⁾ 신자가 죄에 노출되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마음이 굳어 가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지게 된다.

ㄷ) 총체적인 죄에 대한 아픔이 없음

신자가 죄에 의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신자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는 죄에 대한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이나 근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무지가 팽배해진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은혜의 상태에 있는 참 신자의 모습은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질적 정체나 근원적 죄의 뿌리를 파악하여 그 죄에 대한 총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⁷⁴⁾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에게 그 죄가 있

73)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하의 부인을 범하고도 그것을 인하여 죄책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더 큰 악이 자라서 사람을 모사하여 죽이기에 이르른다.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친밀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에게 꿀송이 와도 같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또 다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자식이 자신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서 욕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삼하 12:1-14).

74)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 9:3).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136).

건 없건 상관없이 죄가 세상에 존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우는 것 자체를 향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ㄹ)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함

신자가 죄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사랑이나 긍휼히 여기심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된 모습을 향한 불쾌감이나 아픔을 인식하는 마음의 신령한 지각들이 사라지게 된다. 신자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꺾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신자가 이런 상태가 되면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잃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⁷⁵⁾

(5) 죄 죽임의 방편을 소홀히 함

하나님께서서는 분명 신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신자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⁷⁶⁾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자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은혜의 방편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한다. 만일 이러한 죄 죽임을 위한 은혜의 방편

75)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시 77:7-9).

76)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좃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살전 4:5-80).

들을 소홀히 대하게 되면 죄는 그 힘을 얻어 점점 창궐하게 되고 신자 안에 내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재하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연합되게 하시는 죄 죽임의 실천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신자가 죄의 지배아래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신자가 죄 죽임을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자기부인이 없는 것, 십자가를 목상하지 않음, 말씀을 소홀히 함 그리고 기도에 소홀함 등이다.

a) 자기 부인이 없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본성 속에 남겨진 옛 성품이다. 신자 안에 존재하는 옛 성품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을 설득하고 중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본성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

옛 성품이 사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 삶의 가치의 방향이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옛 성품이 살아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부여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이것을 방해하는 자기사랑을 부정하는 데에 이르러 된다. 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아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의 소원이 옛 자아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신자가 옛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이성을 믿지 않고, 부패한 욕망을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함으로 가두어 두고, 77)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자원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신자가 이러한 자기부

77)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타락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심 때문이다.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수행되는 방식은 의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b)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지 않으려함

신자는 십자가의 은총을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십자가는 신자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 뿐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 삶의 지표적 역할 또한 한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필수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모든 고통과 환난들을 의미 한다 신자들은 이를 통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유사한 경험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자신들을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복종하게 된다.⁷⁸⁾ 그런데 신자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십자가를 마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처럼 생각하고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삶속에서 묵상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실제 하는 영향력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c) 내세를 묵상치 않음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더 이상은 아니다. 오직 신자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⁷⁹⁾ 신자가 내세를 묵상하는 것은 자신에게 실효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육신적 편안함의 가능성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자신의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한다. 또한 세상에 대한 부당한 사랑을 버리게 하여 천상의 소망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이러한 은혜의

78)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빌 3:10-11).

79)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0).

방편에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⁸⁰⁾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 급기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⁸¹⁾ 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치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것으로 둔갑시켜서 스스로를 합리와 시키기까지 한다. 천국에 대한 말씀과 내용을 묵상하기를 싫어하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노릇을 하게 된다.

(6)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신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은 단연코 마음이 바쳐진 기도이다. 그러나 신자의 마음을 죄가 불법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기도의 의무뿐 아니라 기도의 방식, 태도에 대해서도 신자의 마음이 멀어지도록 작용한다.

a) 기도에 준비되지 못함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신자의 마음의 틀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와 은혜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정돈되어 있으며,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어있다. 그러나 내재하는 죄가 활동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자

80)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빌 1:23).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 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 하셨느니라” (히 11:15).

81)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의 마음의 틀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때때로 은혜를 받아도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아무렇게 널부러져 있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틀이 죄의 영향 아래서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의 작용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부패해 버린 정서로 반응해 버리고 정서적으로 감화된 것으로 싸워야 하는데 부패하고 식어져 버린 생각에 의존함으로 더욱더 악한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난 후 생각과 감성적인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의지는 불순종 가운데 죄에게 굴복한 가운데 생각만 앞서고 마음으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죄가 우리의 마음의 틀을 흐트러뜨림으로 어느 것도 제대로 반응할 수 없도록 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이다.

b) 기도의 실천을 꺼려함

신자가 기도를 꺼려하는 단계가 된 것은 벌써 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부분이다. 기도를 꺼려하는 것은 기도하려는 욕구가 죄에 의해서 억눌려진 상태라고 말 할 수 있다.

신자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큰 기쁨이 되어 기도의 의무를 너무도 선한 것으로 여기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신자가 죄로 인해 부패하게 되면 기도의 의무를 꺼려하며 귀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현상은 곧 기도의 의무 자체에 대한 싫증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열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자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망하지 않는 것은 분명 죄가 신자의 마음을 다른 것을 열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c) 기도의 능력을 상실함

신자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가 되고,,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도에 반드시 신적인 영광이 서려있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나 신자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상실해 버렸을 때 기도는 신령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하고 시끄러운 공해가 되는 것이다.

신자의 기도가 능력을 잃게 되면 기도의 실천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가 생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없이 기도의 형식만 계속 유지하려 한다. 이 때 세상의 유혹이나 환희가 오면 그것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게 된다.

d) 기도의 의무를 무시함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준비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며,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없고 자신도 영광스러운 기쁨도 없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틀인 기도의 의무감마저 무시하게 되면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일단 기도의 의무가 신자에게 무시되면 신자는 신적인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로부터 차단된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경외심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교만과 태만의 죄들이 번성하게 된다.

2)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남

회심한 신자라 할지라도 남겨진 죄성과 부패성으로 죄의 불법적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 결코 영원한 지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신자는 죄의 영향아래 지배를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형편을 고려하셔서 각양 은혜들은 신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이미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아니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악한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면서 믿음으로 싸울 것을 권면하였다.⁸²⁾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악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권면이다.

신자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지배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력으로 죄의 권세를 꺾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죄의 불법적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1)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죄는 신자를 강압하여 지배할 수 없다. 오직 신자를 유혹함을 통하여 신자의 동의를 얻어내야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자에게 죄의 지배가 있다는 것은 신자가 마음으로 죄에 동의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현존하는 죄의 지배를 신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a) 무한히 부어지는 은혜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탈하여 영혼의 충기가 없어진다는 것

82)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니라” (벧전 5:8-9).

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된다.⁸³⁾ 그러므로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다시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부어지게 되면 총체적이지는 않지만 총기가 회복되어 자신의 죄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신자가 죄의 지배아래 있다면 하늘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만이 죄의 지배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b) 죄의 지배를 인정함

신자가 죄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자신이 죄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결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의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⁸⁴⁾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의 작용이 선제되어야 한다. 신자가 자신의 죄의 지배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자신의 죄의 지배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시작이다. 결국 신자가 죄의 지배아래서 벗어나려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83) John Owen,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Answerable hereunto, spiritual darkness may be referred unto two heads; for there is an objective darkness, a darkness that is on. men, and a subjective darkness, a darkness that is in them. It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 remove and take away this darkness; which until it is done no man can see the kingdom of God, or enter into it. And this he doth by sending the word of the gospel into any nation, country, place, or city, as he pleaseth. The gospel does not get ground in any place, nor is restrained from any place or people. by accident. or by the endeavours of men; but it is sent and disposed of according to the sovereign will and pleasure of the Spirit of God. John Owen, vol. 3., op. cit., 247-248.

84)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 19:12).

c) 죄의 지배의 행적이 파악됨

죄의 지배가 어떻게 신자에게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 죄의 지배가 신자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파악하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죄의 지배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죄의 지배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부어주신 은혜는 곧 다시 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은혜는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할 은혜들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신자는 끊임없이 은혜와 죄의 지배 사이에서 갈등하며 신자 고유의 자유 함과 능력을 잃은 비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d) 은혜의 방편들을 발견함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어두움의 상태에 있어서 자신이 처한 영적 상황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신자가 스스로 죄의 지배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음을 알고 계셔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자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신다.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자신의 죄가 인정되어지고, 은혜를 잃고 죄의 지배 아래로 오게 된 과정을 깨닫게 되면 죄의 지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은혜의 방편들이 보이게 된다. 신자는 보여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붙들게 되면 죄의 지배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된다.

e) 죄와의 치열한 싸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하고, 악이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죄를 죽일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발견하는 것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예비적 은혜이다. 하나님은 신자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결국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2)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편들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틀을 따라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죄의 지배의 깊은 바다에서 빠져 나오는 튼튼한 배를 주셨는데 지성적 측면은 배의 조타실 역할을 하며, 정서적 측면은 배의 동력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의지적 측면은 가야할 항로의 역할을 한다.

a) 지성적 측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신자의 죄의 지배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것은 지성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측면이 탄탄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아무리 감동이 되어있다고 해도, 의지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결단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에 지속적으로 부합하여 갈 수 없기 때문이다.

(a) 죄를 깨닫게 하심 (어두움의 권세)

신자에게 죄가 유입될 때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것은 생각이라는 통로이다. 죄가 배양되어 자라서 신자를 지배하기 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선제되는데 처음 신자의 생각에 허탄한 것들을 자꾸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흘러 보낸다. 그러므로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선포와 교회의 권면과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죄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은혜의 지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다.

죄는 불법적 세력이며 거짓된 영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죄의 역사를 공격

하고 약화시키며 그 세력으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성의 깨달음을 통하여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된 죄의 세력을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일이다.

(b)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심

일단 신자에게 자신의 죄의 지배의 상태를 지성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죄의 지배의 역사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에게 있는 죄와 대비시키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거짓된 죄의 악함을 더욱 더 악한 것으로 증거 하신다.

(c) 죄 죽임의 방편을 알게 하심

죄의 지배 아래에 오래 빠져 있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이 죄의 지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거의 잃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죄는 신자의 지성을 공격하여 은혜의 방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자신의 지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죄의 지배의 상태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 긍휼을 구하며 돌이키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죄 죽임의 방편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언제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죄 죽임의 방편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고유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사고에 말씀을 통하여 총기의 빛을 밝히시는 것이다.

b) 정서적 측면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데 있어서 정서적 측면에서의 작용은 강력한 힘으로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죄의 재배 아래 놓여있는 당신의 백성을 건지실 때 지성적으로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죄의 지배의 상태를 향한 슬픔을 가지게 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를 회상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하신다.

(a) 죄의 지배를 애통함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죄를 싫어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죄가 신자의 마음을 공격하여 죄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죄에 대해 혐오감을 경감시키고 점점 죄에 대한 애착을 도리어 가지게 점진적으로 역사한다. 이러한 죄의 지배의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죄의 지배의 상태가 얼마나 자신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죄의 지배의 상태를 향한 애통을 불러일으키신다.

(b)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갈망함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는 죄의 지배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그러한 상태를 별로 고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신자는 죄의 지배가 얼마나 불법적이며 악한 것인지를 알고, 지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죄가 강압이나 유혹을 사용하여 지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신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지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한다.

(c) 은혜의 지배를 소망함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는 죄가 주는 헛된 낙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심을 꺼려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생각과 정서가 치료되어서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원을 가지게 되고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정서를 다시 회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신자의 정서에 작용하심으로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순간을 회상하게 하셔서 신자의 무더진 은혜의 정서를 자극하신다. 현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지배를 슬퍼하는 것 뿐 아니라 돌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는 것이다. 반면에 죄에 대한 즐거움의 정서는 경감된다.

정서적 측면에서 죄를 애통하게 하며,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은혜의 통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로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부어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복된 정서는 신자의 마음이 바쳐진 기도를 통하여 대부분 형성된다.

c) 의지적 측면

신자가 자신의 삶에 현존하는 죄의 불법적 지배를 벗어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과 정서의 영역이 준비되어도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모든 은혜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a) 삶의 총체적 정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도 자신의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한다. 하지만 항상 결단은 남발할 뿐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통치

가 효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결단이 일어나고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혁과 겸비가 일어나게 된다. 인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실패했던 거룩한 의지가 실효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의해 순종적으로 변한 의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말씀, 섬김, 이웃사랑, 용서 등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은혜의 통치를 따라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b) 은혜의 방편들을 실행함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들이 존재하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것들이 삶속에 가득하다. 하지만 신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 또한 말씀에 의해 감화 받는 것에 부지런하게 하고, 마음을 바쳐서 기도하는 것을 열망하여 열렬한 기도를 감당하게 하고, 삶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하는 실천적 의지를 실행하게 하심으로 죄를 공격하고 죄를 이기도록 하신다.

ㄱ) 말씀을 사모함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바르지 못한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복된 정서인 미각을 잃어버렸음으로 말씀을 향해 매마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말씀에 대한 병적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론 행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부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회복되어 가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총체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음으로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를

열망한다.⁸⁵⁾ 예를 들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 책을 발견하고 선포할 때 성경은 모든 말씀을 선포했고 모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들은 모든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심으로 좇았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ㄴ) 지속적이며 마음이 바쳐진 기도의 실천

기도가 성화의 작용으로서 죄를 죽이는 데는 최소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지속적인 기도와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기도는 죄 죽임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신자는 오직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는다. 또한 지속적인 기도의 사역은 죄 죽임과 성화의 은혜를 구하고 얻어서 죄의 세력이 꺾멸되고, 죄의 힘이 근절되고, 죄의 뿌리가 마르고, 죄의 생명이 파괴되며, 그래서 옛 사람이 총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사역인 것이며 죄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이다.⁸⁶⁾ 지속적인 기도는 성화에 있어서 신자 안에 있는 죄의 끈질김을 말해주는 것이고 마음이 바쳐진 기도는 죄가 자리 잡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거하는 자리가 입술이라면 거룩한 기도 내용들이 쏟아져 나

85)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대하34:30-32).

86) John Owen, *‘Of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Secondly, Another duty necessary unto this end is continual prayer, and this is to be considered as unto its application to the prevalency of any particular lust wherein sin doth in a peculiar manner exert its power. This is the great ordinance of God for its mortification; for, - [1.] Hereby we obtain spiritual aids and supplies of strength against it. We are not more necessarily and fervently to pray that sin may be pardoned as to its guilt, than we are that it may be subdued as to its power. He who is negligent in the latter is never in good earnest in the former. The pressures and troubles which we receive from the power of sin are as pungent on the mind as those from its guilt are on the conscience. Mere pardon of sin will never give peace unto a soul, though it can have none without it. It must be mortified also, or we can have no spiritual rest. Now, this is the work of prayer, -namely, to seek and obtain such supplies of mortifying, sanctifying grace, as whereby the power of sin may be broken, its strength abated, its root withered, its life destroyed, and so the whole old man crucified. John Owen, *vol. 7, op. cit.*, 529.

을 때 죄가 죽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자리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라서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한 기도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의해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중심을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죄는 죽는 것이다. 존 오웬도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지속적인 기도가 죄 죽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은 그러한 기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책에 대해 용서받도록 열렬히 기도하기보다는 죄의 세력이 꺾이도록 절대적으로 열렬히 기도해야만 한다. 후자에 태만한 사람은 결코 전자에 열렬해질 수 없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압력과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압력과 고통은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 단지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은 영혼에 안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또한 죄는 죽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은 없다. 이것이 기도의 사역이다. 즉 죄 죽임과 성화의 은혜를 구하고 얻어서 죄의 세력이 꺾일되고, 죄의 힘이 근절되고, 죄의 뿌리가 마르고 죄의 생명이 파괴되며, 그래서 옛 사람이 총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사역이다.⁸⁷⁾

㉔) 묵상

묵상은 한 때 기독교의 영적 훈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훈련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기도를 위한 준비와 기도와의 연결점 역할을 감당했다.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기독교적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돕는 탁월한 영적 도구이다.

묵상은 묵상하다(mediate) 또는 명상하다(muse) 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think upon) 또는 반추하다(reflect)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 의미로는 자신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묵상은 불규칙적인 묵상과 규칙적인 묵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자가 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묵상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빠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첫 전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묵상은 묵상의 재료로는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묵상은 하나님

87) *ibid.*, 529.

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마음의 거룩한 행동이다.

죄는 신자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신자의 생각은 신자의 모든 삶에서 배의 조타실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죄와 관련된 분노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의 지배 아래로 갈 수 있는 강력한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세력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사용하는 목상이라는 방편을 허락하신 것이다. 신자는 목상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목상의 방법과 도구가 성경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죄가 신자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거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 목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죄에 지배를 받고 있는 신자가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목상을 인내로서 감당하게 되면 죄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참된 목상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붙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목상할 때에는 그 진리들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신자가 아무리 죄의 통치 아래 있을 지라도 목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 은혜의 통치로 나아갈 수 있다.

목상은 죄가 신자를 유혹하여 죄의 상태로 내려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생각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움으로 죄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상의 재료가 되고 목상은 기도의 재료를 제공 해 준다. 신자는 목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자가 목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섭리, 죄의 심각성, 심판, 구원,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등을 목상할 수 있게 된다면 신자는 죄의 지배를 벗어버리고 은혜의 통치의 지속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지배의 상태를 바르게 알고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과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묵상과 기도의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방편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신자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는 신자는 결코 죄의 지배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오직 신자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거룩한 노력 위에 성령의 주권적 역사하심의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IV. 개혁주의 구속론 안에서의 죄 죽임 교리

1. 그리스도의 속죄와 죄 죽임 교리

그리스도의 속죄와 신자의 의무인 죄 죽임과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개혁주의 속죄론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결국 속죄재물로 드러지신 이유가 인간의 깊은 죄악 때문이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파멸에서부터 건져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스도가 속죄하지 않으면 용서될 수 없는 죄가 결국 속죄를 통하여 구속된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속죄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죄의 속죄 후에 남겨진 오염과 부패성 안에 존재하는 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시작된 죄와의 싸움과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자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죄 죽임의 의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1) 속죄

(1) 속죄의 정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형벌로 죄 값을 치른 것보다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정의이다.

(2) 속죄의 원인

속죄의 궁극적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파멸에 상태가 되어버린 인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진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인간은 내면의 교만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함으로 죄의 길을 택하였고, 그로인해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죄의 길을 갈 경우 반드시 죽이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킨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인 것이다.

(3) 속죄의 본질

첫째,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증명해 보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는 완전한 분이셨고, 성부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시며 합당하신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있으심의 이유로 인해 그 인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속죄하는데 전 생애와 죽음으로 순종하신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소극적인 순종이다. 예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고통 즉 육체적 고통과 죽음, 죄를 담당하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속죄는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께 돌려진 것이며,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지불된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재물로 드러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구속된 것이다.

2) 그릇된 속죄론

그릇된 속죄론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류로 가득 찬 속죄론은 죄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러한 그릇된 속죄론을 가지게 되면 도덕 폐기론적 신앙으로 발전하며, 신자에게 죄에 대한 경박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하게하고 죄와 원수가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벗어난 친구의 신분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1) 사단 배상론

이 견해는 오리겐(주후 185-254)과 그 이후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배상금은 죄인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단에게 준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 견해는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론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속죄재물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지 결코 사단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다.

(2) 도덕적 감화론

프랑스의 신학자인 피터 에버랄드가 처음으로 주장한 도덕적 감화론은 하나님께서 죄 값을 요구하신 적은 없고 다만 죽기까지 죄인의 고난을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대로 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죄인으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속죄는 위대한 교훈적 본보기가

되어 신자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신자의 죄를 사하셨고 증언하신다.⁸⁸⁾ 도덕적 감화론은 속죄의 객관적 특징을 무시해 버리고, 죄인의 죄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여서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권리를 신자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3) 모범론

모범론은 이탈리아의 신학자 파우스트 소시누스(Faustus Socinus)에 의해서 소개된 이론이다. 모범론은 도덕적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죄 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자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만 하였다. 도덕적 감화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 준다고 한 반면 모범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자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 이론의 치명적인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신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4) 통치론

통치론은 화란의 신학자인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에 의해 발생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인에게 죄 값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값을 면제해 주시고 죄 값 없이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론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법인 율법을 깨뜨리면 무서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일

88)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ἐφάπαξ)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 10:10).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 견해의 문제는 죄인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소멸시켜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데 있다.

3) 죄 죽임 교리의 연관성

그릇된 속죄론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이유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즉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근거를 배제하려는 인간 측면의 치졸한 노력들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담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이 죄와 무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죄의 가능성까지 없이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속죄함을 받은 신자에게도 오염과 부패의 죄의 본성이 남겨져 있다. 만일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인 됨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신자가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속죄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그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인 것이다.

2. 칭의와 죄 죽임교리

칼빈이나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칭의가 있기 전에 중생이 먼저라고 보았다.⁸⁹⁾ 왜냐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인데 이것은 중생자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의 권면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 준다. 바울은 롬 3:26 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라고 했으며 롬 3:28 에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다.

신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선포가 있기 위해서는 중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죄인에게 중생을 통하여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이제 죄와 원수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칭의가 선포된 것은 이제 죄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언하는 것이며 신자에게 죄 죽임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전 사건인 것이다.

칭의에 대한 개혁신학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이 주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진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방식으로 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고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물론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 또한 인간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칭의는 하나님만의 선언인 것이다. 칭의는 중생자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것이며, 신자가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며, 신자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이다.

칭의의 근거는 첫째, 인간에게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인간에게 죄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칭의라는 법정적 선언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로는 인간을 향한

89) 존 칼빈, 김종흠 외 譯, 『기독교강요 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247.

하나님의 끝없는 호의와 사랑이다. 그러므로 칭의의 유효적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있다. 칭의의 수단은 중생한 신자의 믿음이다. 바울은 롬 5:1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라고 증언한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믿음으로만 행해지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한 신자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유효한 유익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이 있기 전에 있던 모든 빛이 탕감되고, 변제된다는 것이다. 칭의는 그 효력의 범위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칭의로 말미암아 부여된 의와 성화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칭의의 효력은 결코 상실될 수 없는 것이다.

1) 죄 죽임교리와 의의 연관성

칭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전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칭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채무를 하나님이 법적으로 무효화 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시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신자는 다시 채무자로 정죄될 수 없는 존재라는 선언이다. 중생을 통하여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고 부여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칭의를 경험하고 자신이 결코 죄에 속박 아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칭의 교리는 신자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유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생한 신자에게 칭의가 일어난 것은 그의 신분과 위치가 죄

와 원수가 되었고 이제 신자의 삶은 죄를 죽이는 삶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3. 성화와 죄 죽임교리

개혁교의학에서 성화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성화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칭의의 측면처럼 인간의 어떤 의지나 순종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화에 있어서 성령은 신자가 거룩한 요소의 본질을 가지도록 역사하시고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행동을 유발하신다. 그러므로 성화는 오직 신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작용이다. 또한 성화는 구속된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양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며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또한 성화는 죄 죽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화는 분명 중생한 신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며 중생한 신자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전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신자는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실체로서 만들어져 가고, 복음을 세상에 증거 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

성화의 정의는 중생한 신자에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은혜의 원리로서,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오직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성화의 효력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뿌리로 인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규명된다. 성화는 내면적이며 포괄적인 사건으로서 인간의 마음에 전인격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성화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신자의 삶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적 사건이다. 성화는 점진적인 역사로서 자란다.⁹⁰⁾

성화의 과정은 중생 때에 시작되고 영화의 때에 그 사명이 끝난다. 중생

90) 토마스 왓슨, 이훈영 譯, 『신학의 체계』,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성품이 성화의 동인이 된다. 그 후 죄로 인해 무너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 자각이 일어나는데 이 단계에서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형성된 거룩한 지식은 중생으로 생긴 새로운 성품을 자극하여 신자로 거룩한 삶을 향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는 삶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간다. 성화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경은 신자에게 거룩한 삶을 향하여 분투하여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이다.⁹¹⁾ 성화는 결코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성화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다. 바울 사도 역시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⁹²⁾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화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신다. 하지만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하심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작용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시지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영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신자가 그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신자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다.⁹³⁾ 신자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몸

91)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 (롬 6:19).

92)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93) 웨인 그루뎀 . 노진준 譯, 『조직신학 (중)』, (서울: 은성, 1996), 407.

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신자인 것을 의미한다.

1) 죄 죽임 교리와의 관계

성화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데는 분명 과정이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죄 죽임이다. 신자가 기록해 질 수 있는 것은 결코 헌신이나 충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자가 기록해 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증생으로 말미암아 생긴 새로운 성품으로 죄를 죽이는 것으로 가능하다. 오직 죄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만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죄라고 했듯이 신자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한 실제적인 혐오감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죄를 죽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성화의 작용은 오직 신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으로써 죄를 죽임으로 일어난다.

V. 결론

존 오웬은 분명 17C 를 살았던 칼빈주의 청교도였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였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교리를 설명했고, 교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했다.

존 오웬은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인간 본성에 남겨져 있는 오염과 부패성은 중생을 통하여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직 중생을 통하여 부여된 새로운 성품에 순응하여 성령의 주권적 사역하심에 자신을 위탁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중생을 통하여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성으로 남겨져 있는 내재하는 죄 사이의 치열한 싸움은 성화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한다고 하였다.

존 오웬은 중생한 신자 안에도 내재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죄 죽임(Mortification)의 이유와 근거로 삼았다.

첫째 존 오웬의 죄 죽임 교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지지를 받는 전통 교리이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 솔로몬, 삼손, 기드온, 히스기야, 요시아 등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죄의 역사들은 신자들에게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통치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임을 알 수 있다.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거룩케 하심) 과 교회에 보낸 죄에 대한 경고들, 신자들에게 한 수 많은 거룩에 대한 명령 등은 중생한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의 존재를 근거한 것이고, 내재하는 죄를 죽이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의무인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둘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는 기만성과 강압, 유혹등을 통하여 신자를 불법적으로 지배한다. 중생한 신자는 결코 죄의 궁극적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 중생한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합법적인 지배가 아니라 불법적인 지배이기 때문이다. 원리적으로는 죄의 지배로 갈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의 지배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자에게 실제적 죄의 지배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면 다양한 죄의 징후를 가지게 된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신자에게는 지성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의지적 측면 모두에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마음이 심각하게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싫증을 인하여 영적인 것들에는 무감각해지고, 육적인 것에는 발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만 내주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죄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만 사멸되고 신자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해야 한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죄는 신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의 방편들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 죽는다. 말씀의 감화, 마음이 바쳐진 기도, 진리를 묵상하고 궁구하는 것 등 경건의 거룩한 의무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은혜의 방편들이다.

넷째 죄 죽임 교리는 개혁주의 구속론 안에 존재한다. 죄 죽임의 교리는 속죄교리, 칭의교리, 성화교리 등 개혁주의 구속론 안에 있는 모든 교리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속하셔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역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속죄된 인간에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남겨진 죄의 역사 때문이다. 신자가 중생과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지 않고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남겨진 오염과 부패성으로 인해 성화의 과정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신자는 이 과정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절

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대망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하셔야 했던 것,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셨던 것,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구속의 의미와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신 것은 인간을 타락시킨 죄와 구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내재하여 역사하는 죄의 역사 때문이었다. 죄 죽임의 교리는 개혁주의 구속론 전체 속에서 나타나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화로운 상태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교리임에 틀림없다.

다섯째, 죄 죽임 교리는 개혁신학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적 교리이다. 현대교회는 지금 급격한 하강현상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일부 교회들은 대형화되어 괜찮은 것 같지만 현대교회 전체를 본다면 결코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는 신학의 부재인 것이 분명하다. 현대교회는 이미 개혁신학을 포기한 것 같은 말미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성공한 일부 미국교회의 본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할 수 만 있다면 신학은 살펴보지 않고 수용 하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으로서의 신학과 교리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난 후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부흥의 시대를 주셨다. 예를 들어 16세기 종교개혁은 분명 교리개혁으로 시작한 영적 부흥이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 부패한 교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바른 교리를 선포하심을 시작으로 영적 부흥을 시작하신 것이다. 17세기 청교도 운동도 그러하다. 국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혼잡케 하는 일이 일어났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인간이 조작한 것들로 교회를 가득 채워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교도들을 통하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말씀들을 바로 잡으시는 교리 개혁을 하신 것이다. 이 개혁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아메리카 대륙의 부흥을 준비하신 것이다. 18세기에 미국 대륙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도 결국 교리를 바로 세우는 가운데서 일어난 부흥이었다. 알미니안적 사고방식이 교회에 급속하게 들어오며 자유주

의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점화하신 것이다.

작금의 현대교회의 하강은 분명 신학적 오류 때문이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성장을 위해서라면 신학과 교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교회는 개혁신학을 토대로 한 교리가 교회 부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현대 신자들 중에는 바른 신학과 교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자신을 전적인 타락의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음으로 도덕폐기론적 신앙의 형태에 가깝다. 이렇듯 교리의 오용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 교회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죄 죽임 교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한다. 또한 죄 죽임의 교리는 신자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고, 죄를 죽이기를 소원하는 상태로 이끌어 준다. 죄 죽임 교리는 신자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뿐인 것을 알게 해 준다. 죄 죽임 교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워 놓으신 모든 구원의 능력이 신자들에게 실제 하는 것으로 역사하게 하는 위대한 교리이다. 만일 현대 교회가 개혁 교리 속에 존재하는 죄 죽임의 교리를 가르침을 통하여 신자들을 개혁해 간다면 알미니안, 신정통주의, 해체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학과 개혁교리의 부재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존 오웬의 죄 죽임교리와 개혁주의 구속론(초록)

김영수

대신대학교 신대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지도교수 황 봉 환

본 논문의 집필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개혁신학과 정통교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잃어가는 현대교회를 도전하기 위함이다. 현시대의 기독교의 신학은 매우 혼탁해져 있다. 개혁신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신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학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말로 개혁주의 신학의 재확립이 필요한 시대이다. 개혁주의교리의 부재로 인해 기독교의 핵심교리가 잘못 가르쳐지거나 은닉됨으로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능력과 교회적으로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통한의 시대가 된 것이다.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리와 신학을 세우는 것이다. 신학과 교리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본받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개혁교리 중에서도 죄 죽임 교리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리이다. 이 교리를 가르침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음을 알게 되어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리라 확신한다. 필자는 본 논문 연구를 통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개혁교리의 재확립과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작은 공헌을 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남준. 『개으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_____. 『마음지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_____. 『성화와 기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_____. 『자기 깨어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_____. 『죄와 은혜의 지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박영호. 『청교도 실천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2.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2. 번역서

- D. M. 로이드 존스 著. 서문강 譯,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4, 5, 6』,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3.
_____. 홍정식 역편, 『성령론』, 서울: 새순 출판사, 1986.
_____. 서문 강 譯,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_____. 서문 강 譯, 『시대의 표적』,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3.
루이스 벌코프 지음. 권수경·이상원 옮김, 『벌코프 조직신학 상, 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루이스베일리. 안보현의 譯,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리차드 백스터. 백금산 옮김, 『회심』, 서울: 지평서원, 2002
벤자민 B. 워필드 지음. 모수환 옮김, 『구원의 계획』,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아더핑크 저. 서문강 역, 『인간의 전적 타락』, 서울: 청교도신앙사, 1999.
_____. 서문 강 譯, 『히브리서 강해 I, II, III』, 서울: 청교도 신앙사, 1993.
앤드류 톰슨 지음. 엄경희 옮김, 『청교도의 황태자 : 존오웬』, 서울: 지평서원, 2006.
웨인 그루템 저. 노진준 옮김, 『조직신학 (상), (중), (하)』, 서울: 은성, 1996.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지음. 김덕천 옮김, 『로마서 I, II, III, IV』, 서울: 줄과 추, 1997.
제임스 뷰캐넌. 신호섭 옮김, 『칭의교리의 진수』, 서울: 지평서원, 2002.
제임스 패커 著. 박영호 譯, 『청교도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조나단 에드워즈. 존 스미스 편집, 정성욱 옮김, 『신앙감정론』,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5.

존 오웬. 서문강 옮김, 『존오웬의 영적 사고방식』, 서울: 청교도 신앙사, 2001.

존 칼빈 지음. 김종흡 외 공역, 『基督教綱要 I, III, III』,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_____.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譯, 『칼빈 星鏡註釋 6, 7, 8, 19, 20』, 서울: 성서원, 1999.

존 플라벨. 이태복 옮김,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 서울: 지평서원, 1999.

토마스 왓슨 지음. 편집부 옮김, 『경건을 열망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_____. 이훈영 옮김, 『신학의 체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피터 루이스 지음. 서창원 옮김, 『청교도 목회와 설교』, 서울: 청교도 신앙사, 1991.

헨리 스쿠걸. 모수환 옮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조엘비키 지음. 윤석인 옮김, 『영적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4.

3. 외국서적

Owen, John. The Glory of Christ ; The Works of John Owen, vol 1,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93.

Owen, John. Communion With GOD ; The Works of John Owen, vol. 2,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93.

Owen, John. The Holy Spirit ; The Works of John Owen, vol. 3,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94.

Owen, John. Faith and Its Evidences ; The Works of John Owen, vol. 5,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90.

Owen, John. Temptation and Sin ; The Works of John Owen, vol. 6,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91.

Owen, John. Sin and Grace ; The Works of John Owen, vol. 7,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94.

Owen, John. The Death of Christ ; The Works of John Owen, vol. 10,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93.

4. 정기간행물

서창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서창원 편, 『진리의 깃발』, 2006년 10월
통권 제80호.